

영아 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이 지 연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장 유 경
한글교육문화연구원

곽 금 주 성 현 란 심 희 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본 연구는 영아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로서, 6개월과 10개월에 영아의 어머니들이 보이는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언어적 입력에서 두 가지 변화와 이에 따른 영아의 어휘발달을 살펴보았다. 두 변화 중 하나는 두 시기 간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변화(연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어머니들의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안정성)이다. 48명의 영아와 어머니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실험실(6개월)과 가정(10개월)에서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어머니의 말을 전사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입력량을 분석하였으며, 영아의 어휘능력은 12개월과 15개월에 어휘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입력량의 개인차는 시간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하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경우,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비율의 경우 지시하기와 피드백은 증가하였고 설명하기는 감소하였다. 입력량은 총발화수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은 영아의 15개월 어휘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입력량은 영아의 어휘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주요어 :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안정성, 연속성, 영아의 어휘발달

영아와 양육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 재단에서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육성과제(과제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교신저자 : 장유경, E-mail: ykchang24@hanmail.net

(Bornstein & Tamis-LeMonda, 2001). 여러 연구들에서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방해하는 언어적 행동이 확인되었다. 영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행동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 많은 말과 다양한 어휘의 사용(Hart & Risley, 1995; 장유경, 임현정, 박금주, 2004)이나 복잡한 문장의 사용(Huttenlocher, Vasilyeva, Cymerman, & Levine, 2002)과 같은 성인의 언어적 입력이다. 둘째, 영아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질문(Hart & Risley, 1995; Whitehurst, Falco, Lonigan, Menchaca, & Caufield, 1988;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혹은 영아의 행동에 대한 민감한 언어적 반응(Baumwell, Tamis-LeMonda, & Bornstein, 1997)과 같은 상호작용 행동이다. 이에 반해 영아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무반응적인 행동, 지시적인 행동은 영아의 언어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Hart & Risley, 1995).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있다(Hart & Risley, 1995). 발화의 종류에 근거한 담화 기능,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에서 발화의 순서로 나타나는 인접조건, 행동의 정서적 톤에 따른 정서가를 통해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담화기능(discourse functions)은 어머니가 유발하려는 반응에 따라 어머니의 발화를 범주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설명,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어린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순서적으로 함께 나타난다(Hart & Risley, 1995). Ninio와 Bruner(1978)의 연구에서 8~16개월 동안 영아

를 관찰한 결과, 설명, 질문, 지시나 명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질문하기는 영아들을 언어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언어발달에 대해 촉진적인 효과를 갖는다(Senechal, 1997; Whitehurst et al., 1988). 질문하기 행동은 기억의 유형이나 습득하는 어휘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what-질문(‘이게 뭐야?’)은 회상 기억을 요구하며 표현어휘와 관련 있는 반면, 대개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where-질문(‘어디어?’)은 재인기억을 요구하며 이해어휘와 관련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Senechal, 1997). 기억과의 관련성 외에도 질문은 말을 연습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어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인접조건(adjacency conditions)은 상호작용의 순서에 따른 분류로서 처음 말을 시작하면 주도(initiate), 그에 뒤이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반응(response), 그리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발언지속(floorholding)으로 분류되었다. 이중에서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의 반응을 촉진하였는데, 이것은 영아의 흥미와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민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아들이 단어와 의미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Hart & Risley, 1995). 이와 같은 부모 반응의 영향은 영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민감성(Baumwell et al., 1997)이나 공동주의(Tomasello, 1995)의 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에 의한 주도는 대개 영아가 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대화보다 순종을 요구한다. 주도와 유사한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서 영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어머니의 주의환기 행

동은 영아가 어릴수록 많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며, 13~24개월 영아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이지연 등, 2004).

셋째, 언어행동의 정서가(valence)는 긍정적인 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적인 톤으로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가의 행동은 영아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정서가의 행동은 영아의 활동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의 촉진적 효과가 주목을 받은 반면, 금지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Hart & Risley, 1995; Ninio & Bruner, 1978)은 금지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유해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상호작용 행동이외에 영아의 어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입력의 양이다. 영아의 전반적인 어휘 성장의 속도는 영아들이 듣는 말의 양과 관련이 있으며(Hart & Risley, 1995;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 말에 포함된 어휘 종류와 영아의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Bornstein, Haynes, & Painter, 1998; 장유경 등, 2003).

이처럼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이 의문은 발달의 이슈인 안정성과 연속성의 문제와 관련된

다(Baumwell et al., 1997). 연속성(continuity)이란 연령과 맥락에 걸친 집단 수행의 절대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나 어휘의 변화나 방향이 특정시기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 영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Bornstein, Tamis-LeMonda, & Haynes, 1999). 이에 비해 안정성(stability)이란 연령과 맥락에 걸친 측정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순위에서의 일관성에 관련된 것이다. 즉 개인차가 시간에 따라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질문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 행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특히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두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주로 영아의 특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어머니의 특성이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개인차도 유지된다면, 영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모두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둘 다 보이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언어발달에서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영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안정성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서의 절대적인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Senechal, Cornell과 Broda(1995)는 9, 17, 27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린 영아들(9개월)에게는 주의를 끌고 정교화를 많이 하는 반면, 나이든 영아들(27개월)에게는 질문과 피드백을 많이 하였다. 흥미롭게도 17개월에는 모든 행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행동의 순서에 대한 분석에서 어린 영아(9개월)에게는 주의 끌기, 정교화, 영아의 말소리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고 단편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17개월에는 행동적인 연쇄가 증가하여, 주의를 끈 후 정교화하고, 그 다음으로 질문하고 아이가 말소리로 반응하고 이에 대해 어머니가 피드백을 하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동적 연쇄는 27개월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피드백 이후에는 정교화하거나 질문하는 행동이 연결되는 것과 같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지연 등(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이 영아의 연령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의환기’와 ‘지시하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설명하기(진술하기)’는 연령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질문하기’와 ‘피드백’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양에 대한 연구들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Whitehurst et al., 1988; 장유경 등, 2003), 나타난 변화 양상은 달랐다. Whitehurst 등(1988)은 어머니가 어린 영아에 비해 나이든 영아에게 말을 적게 하며, 이것은 영아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면서 상호작용이 영아의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장유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낮은 월령집단보다 높은 월령집단에서 어머니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에 초점을 둔 반면,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특성상 종단연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Bornstein 등(1999)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아의 연령차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에서의 차이(연속성)에 관심이 있으며, 어머니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유지되는지(안정성)를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 또한 분석이 진행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언급이 매우 드물다. Bornstein 등(1999)은 자유놀이와 식사시간 동안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13개월과 20개월 어머니의 어휘와 언어적 반응성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이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는 횡단연구의 동시대효과(cohort effect)에 기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종단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Tamis-LeMonda와 Bornstein(1994)은 13개월과 20개월 사이에 어머니의 참조적 언어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과 언어적 행동에 대한 횡단연구의 결과(Senechal, 1997; 이지연 등, 2004; 장유경 등, 2003)를 종단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둘째, 측정시기와 측정내용에 따라 안정성과 연속성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언어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이미 어휘를 사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언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이것은 영아의 어휘가 많고 적음과 같은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가 있고 없음과 같은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어이전과 이후 기간의 비교를 통해,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의 언어능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시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특성이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형성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인 6개월과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10개월에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간의 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개월 영아들의 특징은 사회적 참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관심의 초점

이 사람에게서 사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Lock, 2001). 이 시기에는 제한적이지만 타인의 시선을 쫓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시선 쫓기는 언어 이해와 정적 상관이 있다(Morales, Mundy, Delgado, Yale, Neal, & Schwartz, 2000). 그러나 아직 공동주의가 발달하지 않아 영아가 사물 및 주변 세계로 관심이 이동하였어도 타인을 진정 이해하고 타인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다. 이때는 단지 우연적 수준에서 공동주의가 일어난다(Tomasello, 1995). 이 시기는 시선 쫓기와 같은 행동적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10개월 영아들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의사소통 행동인 가리키기(pointing)를 시작하며(Bates, 1976; Bates, Thal, Fenson, Whitesell, & Oakes, 1989), 첫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분명한 단어의 형태라기보다는 단어와 유사한 소리를 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이 두 시기는 영아들이 언어와 관련된 밀접한 신호로서 시선 쫓기 행동이 나타나면서 어머니에게 의사소통의 상대로서 인식될 수 있는 시기와 실질적인 언어로 해석되는 보다 분명한 말소리로서의 단어가 등장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이 두 시기를 구별짓는 언어의 부재와 등장이라는 영아 언어능력의 특징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영아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특정 행동은 영아의 특정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Bornstein(1989)의 제안을 확장하는 것이다. Tamis-LeMonda와 Bornstein(1994)은 어머니의 언어

는 영아의 언어를 그리고 어머니의 놀이는 영아의 놀이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연구들은 행동 영역뿐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와 그것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Nicely, Tamis-LeMonda와 Bornstein(1999)은 9개월 어머니의 반응은 2세 때 영아의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지만, 13개월 어머니의 반응은 2세 영아의 언어능력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Bornstein 등(1999)에서 13개월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은 20개월 영아의 표현 어휘를 예측할 수 있었다. Bornstein의 연구가 9개월 이후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과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는 더 어린 연령(6, 10개월)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후 영아의 언어발달(12, 15개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절대적인 양과 상대적인 양 중에서 어떤 것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이지연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13~24개월에서 어머니의 피드백과 주의환기는 어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피드백과 주의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드백이 많으면 좋은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이는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빈도와 비율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언어이전 시기부터 첫 단어 습득 이후 시기까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서의 개인차가 유지되는

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언어이전 시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이후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후 1개월부터 한국영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하는 48쌍의 어머니와 영아들이었다. 연령 기준은 (출생일-측정일) ± 7 일이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6개월은 생후 5개월 23일~6개월 7일 사이에 있는 영아들이다. 이 기준은 10, 12, 15개월에도 적용되었다. 영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22명이고 여아가 26명이었다. 영아 출생 시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는 평균 30.63세($SD=3.34$)이고 아버지는 33.56세($SD=3.89$)로서 30대였다. 부모의 수입을 살펴보면, 101-200만원(31.3%)과 201-300만원(35.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1-400만원(14.6%), 401-500만원(10.4%), 500만원 이상(6.3%), 100만원 이하(2.1%)의 순이었다. 영아의 어휘발달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교육수준(Roberts, Bornstein, Slater, & Barrett, 1999)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이 각각 38.3%로 가장 많고,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하면 부모의 교육기간은 12~16년(고등학교~대학교) 정도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실험실과 가정에서 관찰하였다. 상호작용 맥락

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Snow, Arman-Rupp, Hassing, Jobse, Joosten, & Vorster, 1976; Snow & Goldfield, 1983), 맥락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놀이로 활동을 통제하였고 실험실에서 제공된 장난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친숙한 장난감들이었다.

놀이장면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6개월에는 어머니와 영아가 실험실을 방문하였고, 10개월에는 검사자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 활동을 녹화하였다. 검사자는 영아가 생후 1개월일 때부터 한달에 한번 지속적으로 방문을 했던 사람으로, 10개월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친숙하였다. 놀이에 사용된 장난감은 6개월에는 연구자가 제공한 장난감으로 자동차, 블록, 인형(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인형), 딸랑이였고, 10개월에는 각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6개월과 10개월 모두 놀이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녹화된 자료가 20분 이상인 경우는 시작한 지 3분 후부터 15분간 전사되었으며, 녹화시간이 15분이하인 경우에는 시작된 지 1-2분 후 전사되었다. 전사시간은 영아의 상태와 물리적인 문제(예, 소음)로 인해 10분~15분정도이며, 총 48명의 자료는 비율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전사시간이 15분인 22명의 자료는 빈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어머니의 말과 행동, 영아의 언어적 행동(예, 웅얼이)이었다.

측정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 측정치. 어

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어머니의 발화를 Hart와 Risley(1995)와 이지연 등(2004)의 코딩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담화기능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요구하는 반응에 따라 설명, 지시, 질문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에서 질문의 형태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아니오 질문, 특수 질문(wh-question), 및 개방형 질문으로 분류되고 분석되었다. 예/아니오 질문은 ‘이건 책이지?’처럼 영아가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에 비해 특수질문은 ‘이건 뭐야?’, ‘멍멍이 어딴어?’, ‘왜?’, ‘아빠 어디 가셨지?’처럼 영아가 단어나 문장으로 대답해야하는 질문들이었으며, 이 질문들은 무엇-질문, 어디-질문, 및 기타 특수질문(‘무엇’과 ‘어디’ 질문을 제외한 질문들; 예, ‘왜?’, ‘어디 갔었지?’)으로 세분되어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어떻게 생각해?’처럼 정해진 답이 없는 개방형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상호작용의 순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인접조건은 피드백과 주의환기로 분류되었는데, 녹화된 자료 중에서 언어적 행동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Hart와 Risley(1995)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에 따라 영아가 시작한 언어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피드백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 영아의 울음이나 짜증내는 소리는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주의환기는 ‘이것 봐’ 혹은 ‘여기 봐’처럼 분명하게 영아의 주의를 끌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00야’라고 이름을 부른 후, 이전과 새로운 활동이 도입된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때 영아의 주의를 끄려는 의도인지 연속

행동의 일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건 뭐야?’와 같은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가는 승인행동과 금지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승인행동은 ‘잘했어’, ‘옳지’와 같은 말이 포함되고, 금지행동은 ‘하지 마’, ‘안돼’, ‘그만’이 포함되었다.

상호작용 행동의 코딩은 연구자 중 한명이 하였으며, 처음 코딩을 시작한 지 4주 후 일부 자료를 다시 코딩하여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92~98%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측정치. 어머니의 언어는 총 발화수(total number of utterance), 총 어휘수(total number of word tokens), 총 어휘종류수(total number of word types)를 측정하였다. 발화는 쉬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어휘는 단어로 구분되었고, 어휘종류는 중복된 단어를 제외한 단어를 말한다(장유경 등, 2003).

영아의 언어능력 측정치. 영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용 어휘체크리스트(MCDI-K: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를 사용하여, 12개월과 15개월에 측정하였다. MCDI-K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호자(주로 어머니)가 보고하는 형식의 언어 검사이다. 여기서 이용된 측정치는 총 표현어휘수와 총 이해어휘수이다.

자료 분석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0.0 윈도우용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연속성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이 영아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행동은 빈도와 비율(개별 상호작용 행동/전체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였고 언어입력은 빈도를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을 위해 전사시간이 15분인 자료들만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수는 22명이었다. 비율 분석에는 전체 4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중에서 인접조건은 영아의 비언어적 반응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여, 모든 발화를 전체로 계산하였다. 이때 피드백과 주의환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에서 승인 행동과 금지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정서가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1에는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비율과 빈도, 표 2에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양이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기능의 경우, 비율은 설명하기와 지시하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t(47)=4.08$, $t(47)=5.62$, $p<.001$.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설명하기 비율은 줄고 지시하기 비율은 증가하였다. 빈도는 모든 행동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설명, $t(21)=-3.12$, $p<.01$; 지시, $t(21)=-5.50$,

표 1. 6개월과 10개월 영아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비율과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6개월		10개월		df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화 기능	설명하기	비율	48	65.08	10.06	58.86	8.97	47	4.08***
		빈도	22	99.27	46.79	138.64	61.17	21	-3.12**
	지시하기	비율	48	12.31	5.72	18.73	7.74	47	-5.62***
		빈도	22	14.73	6.75	38.73	21.51	21	-5.50***
	질문하기	비율	48	22.60	8.92	22.39	7.22	47	.16
		빈도	22	31.50	17.99	50.95	22.96	21	-3.75**
인접 조건	피드백	비율	48	.29	1.74	1.83	2.41	47	-3.79***
		빈도	22	.00	.00	4.59	7.94	21	-2.71*
	주의환기	비율	48	4.50	3.58	3.19	2.77	47	1.98
		빈도	22	4.27	2.49	8.05	7.93	21	-2.28*
정서가	승인	비율	36	49.22	41.53	66.71	35.11	35	-3.12**
		빈도	22	2.95	4.79	5.55	7.02	21	-2.05
	금지	비율	36	50.78	41.53	33.29	35.11	35	3.12**
		빈도	22	1.91	1.95	2.23	3.27	21	-.52

* $p<.05$, ** $p<.01$, *** $p<.001$

표 2. 6개월과 10개월 영아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량의 평균과 표준편차(N=22)

	6개월		10개월		df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발화수	145.50	60.21	228.32	87.02	21	-4.61***
총어휘수	505.04	217.87	574.40	218.43	21	-1.58
총어휘종류수	79.09	45.71	83.63	38.16	21	-.61

*** $p<.001$

$p<.001$; 질문, $t(21)=-3.75$, $p<.01$. 인접조건의 경우, 비율은 피드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47)=-3.79$, $p<.001$, 빈도는 피드백과 주의환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t(21)=-2.71$, $t(21)=-2.28$, $p<.05$. 마지막으로 정서가의 경우, 어머니의 승인행동과 금지행동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각각 $t(35)=-3.12$, $t(35)=3.12$, $p<.01$,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승인이나 금지하는 행동의 빈도는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승인행동이 더 많아졌다. 추가적으로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6개월의 금지

행동 빈도에서만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t(20)=-2.89$, $p<.01$. 어머니들은 남아($M=.67$)보다 여아($M=2.77$)에게 더 많은 금지를 하였다. 6개월에는 전반적으로 남아($M=3.11$)보다 여아($M=6.08$)에게 승인이나 금지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10개월에 차이는 줄어들지만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언어 입력 양에서 총 발화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1)=-4.61$, $p<.001$, 총어휘수와 총 어휘 종류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에서 제시된 질문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디-질문과 무엇-질문의 비율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디-

표 3. 6개월과 10개월 영아 어머니의 질문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6개월		10개월		df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아니오 질문	비율	48	66.43	13.75	64.15	14.90	47	.91
	빈도	22	23.15	14.77	33.27	19.25	21	-4.00***
어디-질문	비율	48	1.06	3.49	3.65	4.63	47	-3.40**
	빈도	22	.52	1.83	2.00	2.78	21	-3.16**
무엇-질문	비율	48	8.62	8.78	5.25	7.68	47	2.14*
	빈도	22	2.69	2.67	3.08	5.88	21	-.45
기타	비율	48	23.76	13.30	26.49	12.98	47	-1.17
	빈도	22	8.77	7.60	13.19	9.36	21	-2.71**
전체	비율	48	33.45	13.63	35.41	14.58	47	-.77
	빈도	22	11.98	8.71	18.27	13.12	21	-3.00**

* $p<.05$, ** $p<.01$, *** $p<.001$

질문, $t(47)=-3.40$, $p<.01$; 무엇-질문, $t(47)=2.14$, $p<.05$.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어디-질문 비율은 증가하였고 무엇-질문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예/아니오’ 질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도의 경우, 무엇-질문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질문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아니오 질문, $t(21)=-4.00$, $p<.001$; 어디-질문, $t(21)=-3.16$, $p<.01$; 기타 특수 질문, $t(21)=-2.71$, $p<.01$; 특수질문 전체, $t(21)=-3.00$, $p<.01$.

2.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안정성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언어적 입력에서의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월과 10개월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담화기능의 경우, 비율은 설명하기, 지시하기와 질문하기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설명, $r=.39$, $p<.01$; 지시, $r=.34$, $p<.05$; 질문, $r=.37$, $p<.01$, 빈도에서 지시하기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r=.33$, $p<.05$, 질문하기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41$, $p<.01$. 인접조건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가의 경우, 빈도에서 승인행동과 금지행동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각각 $r=.55$, $r=.49$, $p<.01$, 비율에서도 승인과 금지행동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각각 $r=.63$, $r=.63$, $p<.001$. 이 결과는 담화기능과 정서가는 안정적인 어머니의 특성인 반면, 인접조건은 안정적인 특성이 아닌 특성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기 유형에서의 안정성을

표 4.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6개월과 10개월 간 상관

	담화기능			인접조건		정서가		
	설명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	피드백	주의환기	승인	금지	전체
비율	.39**	.34*	.37**	.12	-.03	.63***	.63***	
빈도	.28	.33*	.41**	.02	.16	.55**	.49**	.50*

* $p<.05$, ** $p<.01$, *** $p<.001$

표 5.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에서 6개월과 10개월 간 상관

	총발화수	총어휘수	총어휘종류수
빈도	.33*	.55**	.67**

* $p < .05$, ** $p < .01$

살펴보면, 예/아니오 질문의 비율과 빈도에서 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비율, $r = .49$, $p < .001$; 빈도, $r = .53$, $p < .05$.

표 5에서 볼 수 있는 6개월과 10개월 간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경우, 총 발화수, 총 어휘수와 총 어휘 종류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총 발화수, $r = .33$, $p < .05$; 총 어휘 수, $r = .55$, $p < .01$; 총 어휘 종류수, $r = .67$, $p < .01$. 이것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에서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어휘발달간의 관계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어휘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우선 12개월과 15개월 영아의 평균 어휘 수를 살펴보면, 12개월 표현어휘수는 평균 14.31개($SD = 21.13$), 이해어휘수는 평균 61.52개($SD = 47.08$)이며 15개월 표현어휘수는 평균 39.27개($SD = 46.19$), 이해어휘수는 평균 121.35개($SD = 55.92$)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입력과 영아의 어휘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6과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담화기능에서 비율은 6개월 어머니의 설명하기 비율과 영아의 15개월 이해어휘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r = .35$, $p < .05$,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비율과 영아의 어휘 수간에 유의한 상관

표 6.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비율 및 빈도와 영아의 어휘 간 상관

			영아				
			12개월		15개월		
			표현	이해	표현	이해	
답 화 기 능	설 명 하 기	6	비율	-.12	.18	-.08	.35*
			빈도	-.23	.22	.13	.00
		10	비율	.12	.12	.01	.32
			빈도	-.02	-.06	-.11	-.10
	지 시 하 기	6	비율	.11	-.23	.07	-.31
			빈도	-.24	-.26	-.34	-.41
		10	비율	-.16	.05	.01	-.21
			빈도	.04	-.32	-.11	-.57*
	질 문 하 기	6	비율	.07	-.06	.05	-.20
			빈도	-.25	-.20	-.29	-.26
		10	비율	.03	-.21	-.02	-.14
			빈도	.29	-.20	-.06	.09
인 접 조 건	피 드 백	6	비율	-.06	-.10	-.02	.07
			빈도	a	a	a	a
		10	비율	.10	.95	.19	.06
			빈도	-.08	.08	.03	.32
	주 의 환 기	6	비율	-.06	-.21	.09	-.28
			빈도	-.16	.02	-.55*	-.20
		10	비율	-.07	-.18	-.07	-.27
			빈도	.32	-.20	-.15	-.60*

* $p < .05$

a. 빈도수가 너무 작아서 분석되지 않음

이 없었다. 빈도는 10개월 어머니의 지시하기와 영아의 15개월 이해어휘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57$, $p < .05$. 인접조건의 경우, 비율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빈도에서 어머니의 6개월 주의환기와 영아의 15개월 표현어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r = -.55$, $p < .05$, 어머니의 10개월 주의환기와 영아의 15개월 이해어휘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60$, $p < .05$.

정서가에 따라 구분된 행동인 승인행동과 금지행동은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영아의 어휘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

표 7. 어머니의 언어입력과 영아의 어휘 간 상관

유형	개월	영아			
		12개월		15개월	
		표현	이해	표현	이해
어머니의 언어입력	총발화수	6	-.12	.07	.19
		10	.27	-.01	-.02
	총어휘수	6	-.12	.14	.07
		10	-.05	.01	.10
	총어휘	6	-.13	.07	.20
		10	.14	-.06	.36

의 6개월과 10개월의 언어적 입력 양과 영아의 12개월과 15개월의 어휘 수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 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언어적 입력에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또한 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이후 영아의 어휘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달라졌다.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의 경우, 영아의 연령이 높아지면 모든 행동 영역들에서 빈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비율의 경우 설명하기 비율은 감소하고 지시하기와 피드백 비율은 증가하였다. 언어적 입력의 경우에는 총 발화수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빈도와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enechal, 1997; 이지연 등, 2004; 장유경 등, 2003). 영아들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들의 이해 능력이 증가함과 더불어 어머니가 영아를 대화상대로 보고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언어이전(prelingual) 영아들이 인지적으로 진보했으며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성인들이 영아에게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과 일치하여(Bingham, 1971), 어머니가 영아의 언어능력에 대해 갖는 지각과 관련된 듯하다.

다음으로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설명하기의 비율이 감소하고 지시하기 비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6개월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하는 형태인 반면, 10개월이 되면 영아들이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됨으로써 어머니들이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상대로서 영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은 피드백의 증가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질문의 종류와 문장비율에서 확인된 변화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질문의 형태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질문에서도 무엇-질문의 비율은 감소한데 반해 어디-질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어린 연령의 무엇-질문은 영아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태이기 때문(Ninio & Bruner, 1978)에 10개월보다 6개월에 무엇-질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0개월에 어디-질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영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어머니의 문장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6개월에는 문장의 비율이 22%였으나 10개월에는 1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47)=$

2.60, $p < .05$. 여기서 ‘벌이 뽕뽕 날아요.’나 ‘이 건 블록이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나타난 말은 문장으로 분류되었고, ‘주세요’나 ‘이거’처럼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된 말은 비문장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된 것은 상호작용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영아와 어머니 간에 언어적 의사소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영아 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은 인접조건을 제외하고 비율과 빈도에서 안정성을 보였으며, 언어적 입력은 발화수, 총어휘수, 총어휘종류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담화기능(설명, 지시, 질문)과 정서가(승인, 금지), 그리고 언어적 입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어머니의 특성인 반면, 피드백과 주의환기는 영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특성임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Whitehurst et al., 1988) 질문하기 행동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예/아니오 질문에서만 비율과 빈도에서 6개월과 10개월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이 시기 예/아니오 형태의 질문은 지시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 엄마 주세요’하면 지시로서, ‘이거 엄마 줄 거지?’하면 질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형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의도면에서는 영아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특수 질문들은 영아들의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Ninio, 1983)점에서 어머니의 특성보다는 영아의 특성에 의존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하기, 피드백, 및 설명하기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이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Hart & Risley, 1995; Senechal, 1997; 이지연 등, 2004; 장유경 등, 2003)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개인차가 영아의 어휘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아의 언어능력에서의 개인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독특한 상호작용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쌍방향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고유한 특성은 유지되면서 동시에 영아의 연령이나 언어능력에 따라 조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어휘가 적어서 자연발화 자료가 사용되지 못했고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만으로 상호작용의 방향성에 대해 결론을 내기는 것이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측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아 초기 동안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언어적 입력량은 15개월 영아의 어휘발달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하기, 지시하기, 주의환기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선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율과 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설명하기의 비율은 영아

의 표현 어휘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지시하기와 주의환기는 빈도가 영아의 표현 어휘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설명하기는 횡수가 많고 적응이 아니라 다른 행동(지시하기, 질문하기)에 비해 많은 것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지시하기와 주의환기는 절대적인 횡수가 문제가 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는 피드백과 설명하기(이지연 등, 2004), 질문하기(Whitehurst et al., 1988)가 영아의 어휘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영아의 연령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결과는 Bornstein이 주장한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특정 영역의 특정 경험이 시기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영아 초기(6개월과 10개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영아 중기(12개월과 15개월) 영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icely 등(1999)의 연구에서 9개월 어머니의 반응은 2세 때 영아의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결정적이기 보다 잠정적이다. 즉 15개월 이후 영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12개월과 15개월 영아의 어휘수가 적은 것에 따른 통계적 수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영아의 어휘 간 상관이 12개월에 비해 15개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15개월 표현어휘보다 이해어휘와 상관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아의 어휘 수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입력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

으므로 이런 해석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의 수가 적다는 것과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의 월령을 18개월 이후로 확대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어휘발달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05-120.
- Bates, E. (1976). *Language and context: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San Diego: Academic Press.
- Bates, E., Thal, D., Fenson, L., Whitesell, K., & Oakes, L. (1989). Integrating language and gesture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04-1019.
- Baumwell, L.,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7). Maternal verbal sensitivity and child language compreh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2), 247-258.
- Bingham, N. E. (1971). *Maternal speech to pre-linguistic infants: differences related to maternal*

- judgments of infant language competence*. Unpublished paper, Cornell University. Mimeo.
- Bornstein, M. H. (1989). *Maternal responsiven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Bornstein, M. H., Haynes, M. O., & Painter, K. M. (1998). Source of child vocabulary competence: A multivariate model.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367-393.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In G. Bremner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69-295).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 Haynes, O. M. (1999). First words in the second year: Continuity, stability, and models of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spondence in vocabulary and verbal responsiveness across age and contex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1), 65-85.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Brooks.
- Huttenlocher, J., Vasilyeva, M., Cymerman, E., & Levine, S. (2002). Language input and child syntax. *Cognitive Psychology*, 45, 337-374.
- Lock, A. (2001). Preverbal communication. In G. Bremner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379-403).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Morales, M., Mundy, P., Delgado, C. E. F., Yale, M., Neal, R., & Schwartz, H. K. (2000). Gaze following,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in 6-month-old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231-236.
- Nicely, P.,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9). Mothers' attuned responses to infant affect expressivity promote earlier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 4, 557-568.
- Ninio, A. (1983). Joint book reading as a multiple vocabulary acquisition devi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3, 445-451.
- Ninio, A., & Brunner, J. (1978). The achievement and antecedents of label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5, 1-15.
- Roberts, E., Bornstein, M. H., Slater, A. M., & Barrett, J. (1999). Early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educ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8, 49-62.
- Senechal, M. (1997). The differential effect of storybook reading on preschoolers' acquisition of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123-138.
- Sene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17-337.
- Snow, C. E., Arman-Rupp, A., Hassing, Y., Jobse, J., Joosten, J., & Vorster, J. (1976). Mothers' speech in three social classe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 1-20.
- Snow, C. E., & Goldfield, B. A. (1983). Turn the page please: Situation-specific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551-569.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4). Specificity in mother-toddler language-play relations across the second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83-292.
- Tomasello, M. (1995).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 P. J. Dunham(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 (pp. 103-1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Menchaca, M. C., & Caufield, M.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52-559.

1차 원고 접수 : 2005. 1. 14

수정 원고 접수 : 2005. 2. 16

최종게재결정 : 2005. 2. 18

K C I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Verbal Behaviors in Early Infancy

Jiyeon Lee

The Institute of Psychology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Kyung Chang-So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ran S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eeog Sim

Child & Family Studies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ongitudinally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maternal verbal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verbal behavior and infant's vocabulary in early infancy. The total of 48 mothers and their infa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t 6 months and again at 10 months, dyads were videotaped at free play in laboratory room and at home. Data on mother's verbal behavior derived from transcripts of spontaneous speech from the play and categorized based on Hart and Risley(1995), and data on infant's vocabulary were measured from MCDI-K.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verbal interactional behaviors and language input showed stability of individual variation across ages. Second, mother's verbal behaviors were increased as infant's age increased. Finally, mother's verbal interactional behaviors showed partially th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fant's vocabulary at 15 months.

Keywords: mother's verbal behavior, continuity, stability, infant's vocabulary